

## PA-25

**충북지역의 벼 재배지대 및 이앙시기에 따른 출수생태형별 생육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비교**이채영<sup>1\*</sup>, 최예슬<sup>1</sup>, 이희두<sup>1</sup>, 김익제<sup>1</sup>, 홍성택<sup>1</sup>, 김정곤<sup>1</sup>, 우선희<sup>2</sup><sup>1</sup>충청북도농업기술원<sup>2</sup>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**[서론]**

우리나라의 중·북부지역은 평년대비 지난 5년간의 기온 상승폭이 0.6°C로 남부지역의 0.3°C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.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재배기간이 더욱 길어졌지만 고온등속으로 인한 생산량 및 품질의 저하발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쌀 등급제를 대처하기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과 재배지대별 출수생태형의 변동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**[재료 및 방법]**

충북지역 벼 재배지대별 시험지역은 중부평야지 청주에서는 농업기술원, 중북부중산간지 제천 및 남부중간지 보은에서는 농가포장에서 수행하였다. 시험품종은 출수생태형별로 조생종 오대, 진광, 중생종 삼광1호, 청품, 중만생종 삼광, 진수미를 사용하였다. 이앙시기는 제천이 5월 10일~6월 10일(조생종 6월 20일 까지), 청주와 보은은 5월 20일~6월 20일로 각각 4회 이앙하였다. 각 지역별 표준재배법에 준하였고, 재식거리는 청주 및 보은은 30×15cm, 제천은 30×12cm로 기계이앙하였다. 보통기 보비 재배로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여 10a 당 질소사용량은 청주와 보은은 9kg, 제천 10kg으로 각각 사용하였다. 생육, 기상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등을 조사하였다.

**[결과 및 고찰]**

2018년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하여 출수 후 40일간 평균온도는 대체적으로 높았으며, 출수 40일간 적정 등속 평균온도인 21~23°C 범위에는 청주에서는 중만생종의 6월 10~20일, 보은에서는 조생종 6월 20일, 중생종 6월 10일~6월 20일, 중만생종 5월 30일~6월 10일, 제천 조생종 6월 20일, 중생종 5월 30일~6월 10일, 중만생종 5월 20일~5월 30일이었다. 세 지역에서 가장 늦게 이앙한 중만생종은 각 지역별 출수한계기에 다 다르거나 초과하였다. 간장, 주당수수와 현미천립중이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되었으며, 이앙시기에 따른 등속비율은 다소 변화하였지만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. 10a 당 쌀수량은 세 지역에서 조생종은 400~533kg이었으며, 5월 20일에 이앙한 것보다 6월 20일에 이앙하였을 때 12~28% 증가되었고, 증가폭은 청주에서 가장 높았다. 중생종은 436~563kg으로 지역별 가장 늦게 이앙하였을 때 16~27% 증수되었다. 중만생종은 497~561kg으로 이앙시기별 쌀수량 차이가 많지 않았다. 청주와 보은은 6월 10일, 제천은 5월 30일에 이앙하였을 때 수량이 가장 많았다. 그러나 2018년도 폭염으로 인한 환경변이가 심한 것으로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**[사사]**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(과제번호: PJ0384805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주저자: Tel. 043-220-5552, E-mail. metmega@korea.kr